



특집 / 특수건물 안전점검 14년의 평가

# 기업의 잠재위험 관리방안 제시해주어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그간 보험 산업의 발전과 국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노고에 감사하며 창립 14주년을 축하하는 바이다.

과거 우리 생활주변은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되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허다하여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막대하였음은 물론 한번의 화재로 가정이나 기업의 재기가 불가능하였던 예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다행스럽게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 취지와 정신아래 지금부터 14년 전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방



이 현 호

《(주)경방 영등포공장  
비상계획실장》

재기술의 보급과 특수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빈도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적, 물적 피해도 절감되어 국가나 개인에게 그만큼 경제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재해시 보험금 지급을 통한 충분한 보상으로 역경속에서도 극복의 길로 희생하는 견인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화협의 업적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금년으로 설립 68주년을 맞이하는 방직공장이다.

시설은 자연히 노후 되어 전기화재에 취약하고 취급하는 원면이나 유류등은 인화물질이어서 항상 화재의 위험과 긴장속에서 화재 예방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직공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70년대에는 연평균 30여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후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여 근년에는 불티발생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5건 정도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실시되는 화협의 안전점검이 여간 큰 도움을 준것이 아니다.

분야별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자료에 의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여 도출된, 권위있고

기술적 가치가 있는 지적사항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어 회사는 회피하거나 망설임없이 주기적으로 최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적사항을 시정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화협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소방뿐만 아니라 불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제반 조치중 개개인의 화재발생위험을 계량하고 합리적인 계산방식에 의해 공동의 기금을 적립하여 단체적인 경제준비를 하는 보험의 목적을 수행하는 화협의 보험업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에 직접, 간접으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 가정이나 기업에서는 불의 위험이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잠재해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지식 이외의 기술이나 관리능력을 갖지 못하여 잠재된 화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소홀히 취급하기 쉬우며 점검도 미흡한 상태에서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화협에서 보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의 횟수를 증가하여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으로 조력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요망사항의 수행을 위해서는 문제점 도출은 물론, 문제해결의 대책까지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홍보 활동까지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제품개발 또는 생산성 제고등 수익성

과 관련된 기업활동에 직결되는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방재분야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연구와 개선책 마련에 비교적 등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협에 축적된 방재전문지식을 각 검사대상 건물별, 사용 용도별, 각종 제품의 생산 공장별로 세분화된 방재관련전문지식을 연구개발하여 현행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점검과 지도 계몽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체와 방재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급속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이론을 방재업무에 도입, 활용하여야 할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협회부설 방재시험소가 개소된 것도 방재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전문화를 위해서는 산업체, 연구기관, 해외전문기관 등에 연수를 의뢰하는 방법도 권하고 싶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합리적인 방재관리 능력을 갖추고, 각 검사대상업체의 제반 여건등을 감안한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협회의 점검은 관계 법규가 요구하는 최저기준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과정에서 비약적인 개선과 방재에 대한 의식 고취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우리 회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협회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생산 제1주의였으나 지금은 안전 제1주의로 바뀌었으며, 각종 방재관련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화재발생 방지에 만

전을 기하며, 만일에 대비한 소방훈련에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같이 화협의 업무가 국가 방재력의 강화와 화재 발생 방지에 기여해온 초기 단계에서, 이제는 화협의 역할을 좀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의 범위에서 벗어나, 방재안전공학의 관점에서 기업의 위험관리까지 업무영역을 확대, 기업의 잠재위험에 대한 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 줄 때 비로소 건물주나 기업주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그간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 사회적인 필요성의 바탕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방재선진화를 이루어 각종 잠재위험요소를 발굴, 대처함은 물론 방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도록 지속적인 취약점 도출과 효율적인 지도 계몽으로 선도하여 화협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날에 이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화재예방과 유비무환의 태세를 더욱 공고히하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